

肝細胞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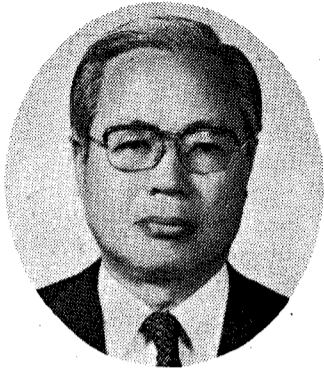
철저히 한다면 2천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간암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나라 간장원장의 재료인 메주나, 땅콩 기타 건조식품등에서 미량의 aflatoxin 이 검출된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간암발생이 안된다고들 하는데 조심스럽다.

◆治療대책◆

완전한 치료는 간절제가 완

왜냐하면 약20~40%의 간암환자는 AFP가 나타나지 않으며 양성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경미한 상승이 계속되어 판단이 힘들고 5백N G이상 그혈중농도가 상승하면 이미 간암은 그직경이 3~5cm이상 커져서 조기완전적출이 힘들다. 뿐만 아니라 간경변 급성 또는 만성간염시도 간세포의 재생이 심한 경우는 간



鄭煥國

〈가톨릭醫大〉
〈內科學教室〉

우리나라의 경우 肝癌의 90% 이상이 B형肝炎바이러스에感染 HBsAg 陽性·肝硬變때 AFP 定期的檢査로 早期肝癌발견可能

◆豫防대책◆

예방을 하려면 먼저 그 질병의 역학적 본체와 원인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1982년도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간세포암(이후 간암으로 표시함)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사망자 1천명당 33.9명으로 악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위암의 다음이며 남자사망질환으로는 으뜸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198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死因수준으로 되어 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연령군은 남자의 40대후반에서 50대초가 많다. 남녀의 비는 4:1로 남자에 월등히 많다.

간암은 간경변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경변증으로 사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군은 간암으로 사망하는 연령군에 비하여 약 5년정도 낮으며 두가지병 모두 남자에서 흔한 병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주성 간경변에서는 간암이 자주 생기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의 만성감염은 만성활동성

B형肝炎發病 32年後에도 肝硬變·肝癌으로 罹患된다 사전에 철저한 백신豫防接種으로 対策강구해야

간염에서 85.4%, 간경변에서 80.4%, 간암에서 90.5%로 이들 질환은 B형간염바이러스감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성간염이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이 되는 것으로 생각케 한다. 또한 부모 특히 어머니가 B형간염 보유자일적에 가족내 간암발생률이 높은 경우가 흔히 있으며 더우기 B형간염바이러스의 유행지역(중국·동남아·아프리카)에서 간암이 자주 생긴다는 점등은 간암발생이 B형간염 바이러스감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암침윤이 한국성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간내에 퍼져있고 또 간경변이 동반되어있기 때문에 광범위 절제술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간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간절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완전치료로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중요하다. 특히 단일병조로 존재하는 조기병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조기간암발견에 가장 좋은 것은 혈청-fetoprotein (AFP) 을 정기적으로검

사이 없어도 AFP수치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AFP는 전예생각하는 것보다 신빙성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의 90% 이상이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기때문에 HBsAg 가양성이면서 간경변이 있으면 3~6개월마다 혈청 AFP와 초음파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초기에 간암을 발견하는 것만인재로는 간암적출 완전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렇게해서 만일 간암이 의심스러울 경우는 선택적 간동맥

5 Fu.Mitomycin C.adriamycin 병합全身療法效果

을 시사한다. 학자들중에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non-A, non-B형 바이러스도 간암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아직 알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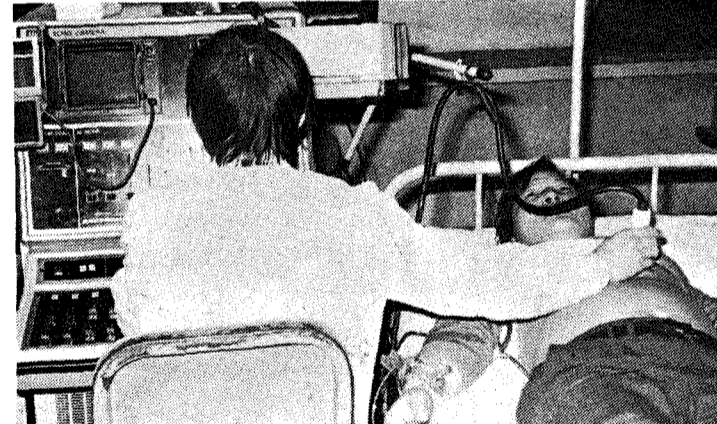
음주와 흡연도 간암발생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통계적으로 음주량이나 흡연량이 많을수록 간암환자가 많았다고 하며 흡연이 더욱 나쁘다고 한다.

곰팡이 종류 특히 aflatoxin 이 간암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아프리카·중국·인도네시아등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수없다.

이상 제시된 원인중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의 만성감염이다. 만성간염의 주원인은 유아 특히 신생아기에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시기의 예방접종이 철저히 실시되면 간염과 더불어 간암도 퇴치할수있을 것이다.

혹설에 의하면 B형간염바이러스가 감염된후 평균 32년에 간암이 생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B형간염 예방을

사해보는 것과, real-time 초음파 촬영을 자주해보는 것이다. 약80%의 간암환자는 AFP수치를 보여준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잠재한 간암이나 조기간암 발견에 유용한 검사법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지금은 그진단적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혈편이다.



◆HBs Ag가 양성이면서 간경변이 있으면 혈청 AFP와 초음파검사를 실시, 早期에 간암을 발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사진은 記事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조영술로 보다 병소를 확정하여 수술하는 것이다.

간암의 비수술적 요법은 화학요법, 면역요법, 간동맥전색법 방사선조사법 등이 있다.

전신적 화학요법은 catheter를 통한 국소주입요법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도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학자들도 있다. 우

상의로 종양이 뚜렷이 감소되고 통증이 멎어지며 복수도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다. 흔히 쓰이고 있는 방법중 하나는 간동맥내에 catheter를 삽입하고 Bolusdose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사용되는 약제들은 5 Fu, Mitomycin C 및 Adriamycin 들이다.

대상은 적출 수술요법이 불가능한 경우 많이 쓰이는데 혈청 빌리루빈치가 3mg/dl 이하, albumin이 3mg/dl 이상, 그리고 복수가 생기지 않았을 때 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간동맥전색법은 수술적출이 불가능할때 종종 쓰이고 있으나 효과는 병소에 들어가는 간동맥결찰법과 유사하다.

면역요법이나 화학요법을 결합 방사선요법은 아직도 연구개발해야 할것같다.

간암의 치료는 계속 끈질기게 그연구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좋은 방법이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초기에 발견 적출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리교실에서는 5Fu, Mitomycin C와 adriamycin을 병합전신요법을 흔히 시행하는데 예

癌검폐인

癌患者가 3명중 1명 있다 그 3명 防과 治療대책

어떻게 管理하면 좋은가

상의로 종양이 뚜렷이 감소되고 통증이 멎어지며 복수도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다. 흔히 쓰이고 있는 방법중 하나는 간동맥내에 catheter를 삽입하고 Bolusdose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사용되는 약제들은 5 Fu, Mitomycin C 및 Adriamycin 들이다.

대상은 적출 수술요법이 불가능한 경우 많이 쓰이는데 혈청 빌리루빈치가 3mg/dl 이하, albumin이 3mg/dl 이상, 그리고 복수가 생기지 않았을 때 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간동맥전색법은 수술적출이 불가능할때 종종 쓰이고 있으나 효과는 병소에 들어가는 간동맥결찰법과 유사하다.

면역요법이나 화학요법을 결합 방사선요법은 아직도 연구개발해야 할것같다.

간암의 치료는 계속 끈질기게 그연구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좋은 방법이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초기에 발견 적출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코피가 어느새 우리생활과 밀접한 기호품이 되어 있다.

특히 직장인들 가운데는 하루 대여섯잔의 코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

코피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이론이나 주장이 종종 나오고 있으나 과연 코피는 어느정도 위험하며 어느 정도의 섭취량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다.

최근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월간 컨슈머리포트誌에 소개했다.

코피는 오래전부터 위궤양 암 결합암출산 그 밖에 여러가지 질병및 신체를 유해하는 것으로 의심돼왔고 급년에는 코피 섭취량과 콜레스테롤 및 심장병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코피와 심장병 2월권 리포니

아주 오래전 퍼머넌트헬스 카오지제이션이 남녀 4만 7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하루 1잔정도밖에 코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코피와 혈중 콜레스테롤치간에 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보다 한달 늦게 스탠포드대학에서 실시한 연

계양환자 妊産婦, 많이 마시지 말도록 胃腸암發生率 2배이상 높다는 報告도

구에서는 코피와 콜레스테롤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로 앉아서 일하는 77명의 중년남자들의 코피섭취량과 식사내용을 조사한 결과 하루 2컵이상의 코피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교그룹에 비해 혈중콜레스테롤수치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이들 연구결과가 코피자체의 관상심장질환유발가능성을 입증했다고는 볼수없다. 카이저립의 연구자들도 코피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독립적요인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피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지 모른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루 두잔 이상 마시면 有害우려

산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의사들은 계양환자들에게 코피를 피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실제로 코피가 위궤양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비교적 약하다.

코피섭취량과 위궤양 발생의 관계

코피와 위궤양

분체여부에 관계없이 위

를 밝히는 연구결과가 2년전에 나와 주목을 끈 바 있다.

보스턴에서 실시된 조사연구결과 하루 두잔의 코피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 위궤양 발생률이 거의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티모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조사에서는 카페인이 제거된 코피도 위궤양 발생

「코피」어느정도 危險한가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그러나 코피와 위궤양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제3의 연구결과도 공개된 바 있다.

카페코피와 카페인: 인은여러가지 효능을 지닌 약제이다. 이것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신진대사와 위산분비를 촉진시킨다. 또 소변생성을 촉진하고 어떤 혈관은 넓게 어떤혈관은 좁게 만들어 근육운동량을 증가시킨다.

다량 섭취하면 불유쾌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적은 양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수가 있다. 금방 끓인 코피 1~2컵에 해당하는 카페인이 1백50~2백mg이면 보통 성인에게 자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루 두잔 이상 마시면 有害우려